

바이오 사업화전략 세미나 4월8일 개최

한국바이오벤처협회는 4월8일 서울 서초동 리더스빌딩 6층 ETRI(한국전자통신연구원) 서울사무소에서 <바이오 사업화 전략 세미나>를 개최한다.

세미나는 1월31일 <바이오 기획포럼> 창설 후 처음으로 열리는 세미나로 BT와 IT가 만나 새로운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.

세미나에서는 TUV Korea의 손혜정 부장이 <유럽진출의 필수항목 CE마크>, 한국바이오벤처협회의 최종훈 사무처장이 <바이오기술 사업화 사례 소개: 수면 무호흡증관련 의료기기(미국사례)>,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승환 박사가 <ETRI의 협력가능한 기술 소개>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다.

한편, 한국바이오벤처협회는 전통바이오산업에서 융합바이오로 진보하는 현황에 발맞추어 한국산업기술재단 지원 아래 <바이오융합 산업기술 로드맵>을 작성한 바 있다.

<화학저널 2008/04/07>